

##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사회자본이 지역애착과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 미 영(제1저자)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프로젝트 경영학과 (박사과정)

조 동 혁(교신저자)

송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Rural Complex Areas

Yu, Mi Yung (First Auth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l University (Ph.D program)

Jo, Dong Hyuk (Corresponding Auth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ngsill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The importance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increasing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e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revitalize local services. In order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ocial capital (network, norms, trust) and community attachment are needed. In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rural complex areas where each characteristics coexist.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s. A total of 158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150 of which were selected as samples for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1.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etworks, norms, and trust factors that make up social capital have a positive impact on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Moreover, community attach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community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social capital to improve the level of community attach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rural complex areas.

*Keywords* : Urban-Rural Complex Areas, Social Capital, Community Attachment, Community Participation

접수일(2021년 05월 24일), 수정일(2021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2021년 06월 13일)

## I. 서론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다양성과 복잡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지속해서 파생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서 각종 문제해결 및 지역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도는 다른 지역사회 대비 경쟁우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이다(황명주와 김형수, 2019). 특히,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 되는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최희용과 정문기, 2019).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서비스 활성화는 지역에 대한 개인의 애착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상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박승배와 정남호, 2016). 그러므로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는 지역에 대한 주민의 애착심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김희진 등, 2017).

한편,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은 사회자본을 밑바탕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이 격차는 도시/도농복합지역/농어촌 등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필요한 사회자본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회자본이 지역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농복합이란 농촌의 지역적 요소와 도시의 지역적 요소가 공존하는 곳으로(이해중, 1997), 지역개발의 관점에서는 도농복합을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보완되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보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적합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농통합지역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지역사회참여의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것은 도농복합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재발견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배은석과 박해금, 2016).

도농복합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역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이 지역사회발전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규범인 공식적인 기능과 함께 비공식적인 기능을 포괄하여 관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소진광, 2004). 또한, 도시로의 이주로 인한 생산인력의 부족, 가족 형태 변화 등과 함께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 보건/교육/문화서비스 등의 상대적 소외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농촌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에 대한 개념적 접근보다 사회자본을 통한 설명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임철아와 정성호 2017). 더불어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의 형성을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또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황명주와 김형수, 2019).

결과적으로 사회자본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이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애착심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자본이 지역애착이나 참여 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자본이 지역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사회자본이 지역애착과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기반에 따른 주민들의 지역애착과 지역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지와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과 집단 간 상호관계의 질과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협력 및 참여함으로써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경제 및 사회의 역동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을 준다(이재열, 2006). 사회자본의 핵심은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망을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또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황명주와 김형수, 2019).

사회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ourdieu(1986)는 ‘상호 면식이나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화된 관계나 네트워크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특정 집단 내 일원이 되어 집단으로 소유하게 된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였다. 또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여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로 정의하고 정보 채널, 규범과 효과적인 제재, 신뢰와 의무라는 기제를 통해 협력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과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Putnam(1995)은 ‘개인 간의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참여와 상호 호혜적 규범, 그리고 집단적 신뢰’로 정의하고,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와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가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문유정과 주미연, 2019). 또한, 직무, 정치 및 경제활동 등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네트워크와 가족, 이웃, 친구 등을 포함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연대의식은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과 책임감이 공유되고 지역사회 안정성, 정부의 효율성 더 나아가 경제성장 촉진과 같은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문유정과 주미연, 2019).

따라서 사회자본 이론은 신뢰 및 신뢰에 기반 하는 의무와 기대, 제재 및 효과적인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등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실체가 포함되며, 다수의 연구가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있다(정순돌과 성민현, 2012; 문유정과 주미연, 2019).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을 언급하고 있다(박용순과 제상호, 2015; Putnam, 1993). Coleman(1988)은 사회자본에는 두 가지의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첫째는 사회자본이 지역사회의 구조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자본이 그 지역사회의 구조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진하는 힘이며, 사회자본이 생산적이면서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희창과 박희봉(2005)은 사회자본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선행연구의 개념 고찰한 결과 대체로 사회자본이 네트워크, 규범, 신뢰, 참여 등을 핵심요소로 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규범, 신뢰, 참여 등을 기본으로 한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사회자본이 풍부하면 지역발전도가 높다고 하였다(고진영 등, 2018). 즉 사회자본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활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의 발전과 퇴보에 영향을 미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축적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이희창과 박희봉, 2005).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로서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전반적인 연계 형태를 의미하며 집단 내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박희봉 등, 2003). 그러므로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기반으로 연결된 개인이나 집단과 같은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 형태를 의미하는 관계구조라 할 수 있다(원동재와 김태룡, 2013). 사회자본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핵심인 네트워크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발생된다(원동재와 김태룡, 2013). Coleman(1988)은 모든 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비공식 혹은 공식조직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가지며,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 규범을 가지고 협력한다고 주장하였다. Putnam(1993)은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고려하였으며, 수직적인 네트워크보다는 시민적 참여의 수평적이고 거미줄 같은(web-like) 네트워크가 더욱 넓은 범위의 사회를 포괄할 가능성이 높아 공동체 수준에서의 협력의 기초가 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규범은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으로 행동 일부분에 제약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 구성원 및 조직 간의 공통된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다. 즉, 규범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규범을 언급하며, 규범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협력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 또는 조직 간의 공유의식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며, 규범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상호신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Putnam(1993)은 규범에 의존하는 사회가 효율적인 사회라고

주장하며, 규범은 네트워크의 기대를 통해서 확고해진다고 하였다. Fukuyama(2001)는 규범을 개인 또는 조직들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본으로 규범을 관계적 행위로 보고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중에서 규범이 가장 기저에 있다고 제시하였다(황명주와 김형수, 2019).

그리고 신뢰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기대인데, 일반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신념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신뢰는 조직의 협력을 촉진하면서 사회결속을 달성하는데 있어 전제가 되고 있다.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과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관계를 맺으며 협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Coleman, 1988). 이러한 신뢰는 공정성과 그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공통적 규범 및 절차를 통해 가장 잘 형성된다고 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 구축되기보다 능동적인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다고(Coleman, 1988; Putnam, 1993; Fukuyama, 2001).

## 2.2 지역애착

지역애착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Shumaker et al.(1983)과 Giuliani(2003)는 지역애착을 “어떤 장소에 속하여 그 장소의 다양한 환경과 경험들을 겪으며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에 대해 형성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경영, 2018). Altman & Low(1992)는 지역애착을 “사람이 환경에 대해 갖는 생각, 신념, 지식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행동으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최승담과 강신겸(2001)은 지역애착을 “인간과 환경 즉, 특정 장소 또는 지역사회에 인간이 갖는 관심”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장정순과 임원선(2015)은 지역애착을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으로 이해하였고, 지역애착은 지역주민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주민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보았다. 즉, 지역애착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이경영, 2018).

## 2.3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참여란 주민 및 지역사회조직이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수행되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민소영과 이영순, 2014). 여기서 말하는 사회참여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몫을 담당하며, 사회적 자아로서 각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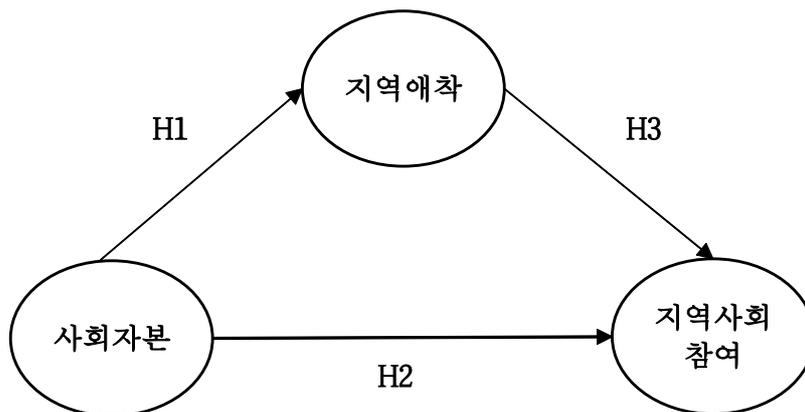
의할 수 있다(Palmore, 1981; 민소영과 이영순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속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최희용과 정문기, 2019).

지역사회참여는 각종 정책 및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요인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고 특히,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행위는 주민들 간의 규범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부성과에도 영향을 준다(박희봉과 김명환, 2001; Putnam, 1995). 따라서 지역사회참여는 바람직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참여자와 집단, 조직 간의 집단행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어 중요하다(Putnam, 1995).

### III. 연구 설계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사회자본이 지역애착과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독립변수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인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설정하였고, 사회자본의 종속변수로 지역애착과 지역사회참여를 설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지역애착과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자본의 하위차원을 네트워크와 규범, 그리고 신뢰로 제시하고, 이들 변인이 지역애착과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박희봉과 김명환(2000)은 주민들 간의 협력과 규범,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공유 정도를 사회자본으로 보았고, 이러한 사회자본의 정도가 주민의 정치 참여와 지역 봉사, 지원 행사 참여, 지역사회 단체 참여 등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열과 임하경(2005)은 네트워크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애착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미영(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역사회참여 활동이 지역애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ewicka(2011)는 사회자본이 ‘지역’을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의미있는 장소’(meaningful place)로 인지하게 하여 지역애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정은(2019)은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사회적자본이 주민의 지역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애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사회자본이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사회자본은 지역애착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참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애착은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민의 참여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애착이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최희용과 정문기, 2019). 최승담과 강신겸(2001)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주민들이 애착을 강하게 느낄수록 지역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한다고 보았고, 곽현근(2008)은 지역애착이 지역 내 주민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등(2009)은 마을 만들기 지역애착도가 주민참여도 주요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강순화 등(2012)의 연구에서는 애착심이 높은 지역주민일수록 지역 행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갖는 애착도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지역애착은 지역사회참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사회자본은 Coleman(1988), Nahapiet & Ghoshal(1998), Tsai & Ghoshal(1998), Papamarcos(2002), 황명주와 김형수(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네트워크 5개 문항, 규범 5개 문항, 신뢰 5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Tartaglia(2006), 배은석과 박해금(2016), 김두순 등(2018), 임경환(2019), 박영순 등(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역애착 5개 문항, 지역사회참여 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구성개념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	출처
네트워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속의 정도	서로 가깝게 지냄 의사소통이 원활함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 긴밀하게 협력함 지속적으로 교류함	Coleman(1988), Nahapiet & Ghoshal(1998), Tsai & Ghoshal (1998), Papamarcos (2002), 황명주와 김형수(2019)
규범	사회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의 정도	규범과 규칙이 확립되어 있음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 질서가 잘 확립되어 있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음 협력 시 서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함	
신뢰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서로에 대한 기대 혹은 믿음의 정도	서로 신뢰하고 있음 약속을 잘 지킴 서로 의지 할 수 있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 지역사회에 대해 신뢰함	
지역애착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	살고 있는 지역을 좋아함 지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지역은 안전한 곳임 지역은 다른 지역 보다 살기 좋음 지역을 옮기고 싶지 않음	Tartaglia(2006), 배은석과 박해금 (2016), 김두순 등(2018)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되는 제반활동의 정도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토론/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주민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	배은석과 박해금 (2016), 임경환(2020), 박영순 등(2020)

## IV. 분석결과

### 4.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을 토대로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가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158부이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 8부를 제외한 150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고,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n=150)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8	32.0
	여성	102	68.0
연령	20대	4	2.7
	30대	29	19.3
	40대	57	38.0
	50대	42	28.0
	60대 이상	18	12.0
거주기간	1년 미만	7	4.7
	2년~5년 미만	10	6.7
	5년~10년 미만	14	9.3
	10년~15년 미만	28	18.7
	20년 이상	91	60.7
주거지역	농촌지역	48	32
	도심지역	102	68

###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및 구성개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한 내적일관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이 0.5 미만으로 나타나면 타당성을 저해하므로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규범 5번 문항을 제거하였고, 남아 있는 문항들을 대상으로 고유값 1 이상의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결과적으로 <표 3>과 같이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총 분산 설명력은 83.861%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 Bartlett의 구형 검정 결과 3991.78(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개 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 산출 결과, 0.931~0.952로 나타나 기준치 0.7을 초과하였으므로 신뢰성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변수		성분					Cronbach's α
		1	2	3	4	5	
네트워크	네트워크2	<b>.829</b>	.253	.226	.207	.119	<b>.949</b>
	네트워크5	<b>.820</b>	.137	.270	.282	.146	
	네트워크3	<b>.805</b>	.178	.185	.237	.238	
	네트워크1	<b>.786</b>	.325	.252	.186	.141	
	네트워크4	<b>.751</b>	.130	.344	.326	.131	
지역애착	지역애착5	.100	<b>.838</b>	.202	.185	.102	<b>.931</b>
	지역애착4	.183	<b>.826</b>	.133	.239	.194	
	지역애착1	.191	<b>.807</b>	.168	.183	.248	
	지역애착3	.221	<b>.744</b>	.120	.168	.289	
	지역애착2	.294	<b>.743</b>	.226	.221	.304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참여4	.191	.218	<b>.838</b>	.250	.129	<b>.947</b>
	지역사회참여5	.203	.174	<b>.803</b>	.335	.161	
	지역사회참여3	.297	.194	<b>.785</b>	.294	.230	
	지역사회참여2	.366	.157	<b>.755</b>	.257	.282	
	지역사회참여1	.282	.176	<b>.728</b>	.105	.254	
신뢰	신뢰3	.257	.155	.301	<b>.815</b>	.174	<b>.952</b>
	신뢰1	.286	.259	.237	<b>.791</b>	.247	
	신뢰5	.266	.226	.306	<b>.781</b>	.219	
	신뢰2	.247	.279	.195	<b>.752</b>	.296	
	신뢰4	.278	.285	.241	<b>.718</b>	.199	
규범	규범3	.158	.196	.238	.230	<b>.849</b>	<b>.932</b>
	규범1	.185	.204	.239	.204	<b>.844</b>	
	규범2	.142	.304	.170	.204	<b>.816</b>	
	규범4	.172	.319	.199	.241	<b>.788</b>	
고유값		4.250	4.125	4.075	4.036	3.641	X
분산(%)		17.709	17.188	16.979	16.816	15.169	
누적 분산(%)		17.709	34.897	51.876	68.692	83.861	
KMO 측도		.938					
Bartlett의 구형검정		3991.78(p<.001)					

### 4.3 상관관계 분석

다음은 구성 개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4>와 같이 모든 변수에서 정(+ )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검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상관관계				
	네트워크	규범	신뢰	지역애착	지역사회참여
네트워크	1				
규범	.496**	1			
신뢰	.660**	.601**	1		
지역애착	.548**	.601**	.602**	1	
지역사회참여	.657**	.571**	.667**	.530**	1

\*\* p<0.01

### 4.4 가설검증결과

먼저 사회자본과 지역애착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네트워크( $\beta=.206$ ,  $p<0.05$ ), 규범( $\beta=.343$ ,  $p<0.001$ ), 신뢰( $\beta=.259$ ,  $p<0.01$ ) 모두 지역애착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설명력은 47.5% 정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1, 1-2, 1-3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 5> 사회자본과 지역애착 간의 관계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VIF	결과
		B	표준오차	$\beta$				
지역애착	네트워크	.192	.076	.206	2.549	.012*	1.822	채택
	규범	.355	.079	.343	4.512	.000***	1.609	채택
	신뢰	.239	.081	.259	2.952	.004**	2.149	채택
$R^2 = .475$ , $F = 44.096$ , $p = .000$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네트워크( $\beta=.346$ ,  $p<0.001$ ), 규범( $\beta=.213$ ,  $p<0.01$ ), 신뢰( $\beta=.311$ ,  $p<0.001$ )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유의한 정(+)<sup>의</su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1, 2-2, 2-3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 6>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참여 간의 관계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VIF	결과
		B	표준오차	$\beta$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	.384	.082	.346	4.655	.000***	1.822	채택
	규범	.261	.086	.213	3.039	.003**	1.609	채택
	신뢰	.340	.088	.311	3.847	.000***	2.149	채택
$R^2 = .556$ , $F = 61.044$ , $p = .000$								

주: \*\* $p<.01$ , \*\*\* $p<.001$

마지막으로 지역애착과 지역사회참여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지역애착( $\beta=.530$ ,  $p<0.001$ )이 지역사회참여에 유의한 정(+)<sup>의</su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7> 지역애착과 지역사회참여 간의 관계 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결과
		B	표준오차	$\beta$			
지역사회 참여	지역애착	.630	.083	.530	7.610	.000***	채택
$R^2 = .281$ , $F = 57.913$ , $p = .000$							

주: \* $p<.05$ , \*\*\* $p<.001$

## V. 결 론

본 연구는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지역의 사회자본, 지역애착 및 지역사회참여 간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모든 요인이 지역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애착도 증대와 관련해 사회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지역 형태인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

의 형성을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황명주와 김형수, 2019).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도농복합지역에서도 사회자본이 지역애착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모든 요인이 지역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도농복합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지역사회발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공감대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식적 기능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기능을 아우름에 있어 사회자본이 관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소진광, 2004). 따라서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사회자본 수준을 토대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배은석과 박해금, 2016). 셋째, 지역애착이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애착이 주민참여의 영향요인임을 보여주는 다수의 선행연구(최승담과 강신겸, 2001; 곽현근, 2008; 이경영, 2018)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애착도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도농복합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공존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역에서도 거주민의 지역애착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지역애착, 지역만족, 지역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집중해왔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요인으로 지역 사회자본을 설정하여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고 행동의 규칙을 정하며 상호신뢰 형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지역 사회자본이 충분할수록 주민들의 지역애착이 증가하고 이는 지역사회참여로 확산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지역의 대상 지역을 소수의 도시로 한정하였으나 향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과 사회적 자본, 지역애착도 등이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면 변수 간 영향 관계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이경영, 2019). 또한 본 연구는 특정시점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상태를 기반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유입되는 가구들의 복지서비스 욕구 등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지역사회 성격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순화, 황보배, 김공 (2012), 메가이벤트 개최 주민의 지역애착심과 주민인식, 지지도, 협력의사와의 관계분석: 2015 광주하계 U 대회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1(5), 225-242.
- 고진영, 김지용, 양민호, 김명일, 김기성 (2018), 농촌주민의 역량이 농촌개발의 참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농공학회논문집*, 60(1), 37-45.
-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6.
- 김두순, 김성록, 박덕병 (2017), 농촌 지역사회 주민역량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지역사회 애착도의 조절효과, *농촌지도와 개발*, 24(4), 279-293.
- 김희진, 류지호, 김인신 (2017), 지역주민의 사회적 정체성, 지역 애착심, 관광객에 대한 정서적 태도 및 지역주민의 시민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연구, *동북아관광연구*, 13(4), 25-44.
- 문유정, 주미연 (2019), 광주·전남지역 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7(1), 1-25
- 민소영, 이영순 (2014),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판사회정책*, 43, 207-235.
- 박승배, 정남호 (2016), 온라인 게임 애착의 원인과 애착 후 행동에 관한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행동과 시도행동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17(5), 89-106.
- 박영순, 윤준상, 김두순 (2020), 지역사회 애착과 지역사회 만족 간의 영향 관계에서 지역사회 관여의 조절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279-294.
- 박용순, 제상호 (2015), 농촌관광개발에서 사회적 자본과 주민지각과의 관계-집단적 측면에서 삶의 질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21(3), 85-99.
- 박희봉, 강제상, 김상목 (2003), 조직내 사회자본과 지적자본의 형성 및 조직성과관리에 대한 효과, *한국행정연구*, 12(1), 3-35.
- 박희봉, 김명환 (2001), 우리 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배은석, 박해금 (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73-199
- 배은석, 손지현, 박해금, 송영지 (2017), 지역사회애착이 지역사회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1), 137-156.
- 서용선, 김아영, 김용련, 서우철, 안선영, 이경석, 임경수, 최갑규, 최탁, 홍섭근, 소진광

-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8.
- 이경영 (2018), 주거환경만족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애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1), 89-117
- 이경영 (2019), 지역애착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2(4), 1-20.
- 이정은 (2019), 지역축제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애착도, 성과 및 지역애호도간의 구조적 관계: 2018년 밀양강오딧세이 공연을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19(1), 105-124.
-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 33-67.
- 이지혜, 이명훈, 전병혜 (2009),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 구조 분석: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4(1), 73-85.
- 이희창, 박희봉 (2005), 사회자본과지역발전, *한국행정논집*, 17(4)183-1206.
- 임경환 (2020). 도시관광 재생사업이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99, 571-591.
- 임설아, 정성호 (2017), 귀농귀촌인의 사회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8(1), 9-99.
- 오미영 (2008),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미치는 영향, *언론정보연구*, 45(1), 131-171.
- 원동재, 김태룡 (2013), 지역사회의 특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 횡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4), 93-111.
- 장정순, 임원선 (2015), 지역사회 애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2), 101-125.
- 정순돌, 성민현 (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32(4), 249-272.
- 최승담, 강신겸 (2001), 지역사회 애착도의 구성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관광개발에 대한 시사점, *사회과학논총*, 20, 203-222.
- 최열, 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53-64.
- 최희용, 정문기 (2019), 지역사회애착도가 주민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5대 생활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4), 855-878.
- 황명주, 김형수 (2019), 지역사회조직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축 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4(2), 207-227.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edited by J. Richards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rk Pres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Fukuyama, F. (2001),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2(1), 7–20.
- Giuliani, M. V. (2003), Theory of attachment and place attachment. *Psychological theories for environmental issues*, 5, 137–170.
- Kuvan, Y. and Akan, P. (2005), Residents' attitudes toward general and forest-related impacts of tourism: the case of Belek, Antalya, *Tourism management*, 26(5), 691–706.
- Lewicka, M. (2011), Place attachment: How far have we come in the last 40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3), 207–230.
- Nicholas, L. N., Thapa, B. and Ko, Y. J. (2009), RESIDENTS' PERSPECTIVES OF a world heritage site: The pitons management area, st. Luci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6(3), 390–412.
- Ozkan, D. G. and Yilmaz, S. (2019), The effects of physical and social attributes of place on place attachment: A case study on Trabzon urban squares.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Research*, 13(1), 133–150.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13(4), 35–42.
- Putnam, R. (1995),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Canadians,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Shumaker, S. A. and Taylor, R. B. (1983), Toward a clarification of people–place relationships: A model of attachment to place, *Environmental psychology: Directions and perspectives*, 2, 19–25.
- Tsai, W. and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4), 464–476.

**\* 저자소개 \***

· **유 미 영(momlion2003@naver.com)**

승실대학교 프로젝트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서비스운영관리, 공공정책, 복지경영 등이다.

· **조 동 혁(joe@ssu.ac.kr)**

현재 승실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강의 및 연구 분야는 생산관리, 서비스 운영관리, 프로젝트경영, 기술경영 등이다.